

‘-거늘’, ‘-거든’ 통합형 표기의 음운론적 해석

김 남 미*

〈목 차〉

- | | |
|-----------------------|-----------------------|
| 1. 글머리 | 3.1 선행 어간말 자음 ‘ㄹ’의 표기 |
| 2. 기존 논의와 문제 제기 | 3.2 음절축약과 활음삽입 |
| 3. ‘-거늘, -거든’ 통합형의 표기 | 4. 마무리 |

【요 약】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거든, 거늘’ 통합형의 표기 양상을 미시적으로 고찰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15세기 국어의 ‘-거든, -거늘’은 특정 환경에서 ‘ㄱ’은 탈락되는 것이지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굴절에서 탈락의 환경이 되는 ‘ㄹ’이 후행 음절의 음절초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과 어간말 모음 ‘ㅣ’와 ‘-어든, -어늘’ 사이에서 축약이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둘째, ‘-거늘, -거든’의 입력형은 /-거늘, -거든/이다. /-어늘, -어든/과 같은 별도의 입력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문헌에서 동일한 어간이 /-거늘, -거든/과 통합된 경우와 /-어늘, -어든/과 통합된 예를 모두 가진다. 또 범주가 다른 두 어간이 통합형에 대해 연철표기와 분철표기가 모두 나타나 범주에 따라 입력형이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셋째, ‘ㄱ’탈락의 환경이 되는 ‘ㅣ’는 /i/이다. 이를 /iy/의 기저형으로

* 서강대학교 강사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간말 모음 ‘ㅣ’와 ‘ㄱ’탈락형 ‘-어든, -어늘’이 ‘여든, 여늘’로 음절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이 어간말 모음 ‘ㅣ’의 기저가 /iy/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1. 글머리

이 논문은 ‘-거늘’, ‘-거든’ 통합형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ㄱ’탈락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찰하려 한다.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ㄱ’탈락¹⁾과 관련된 예들은 선행요소의 음운론적인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 또는 알 수 없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다. 어떤 예들은 선행음절의 ‘ㄱ’이 ‘ㄱ’이 탈락된 위치로 이동되어 표기되기도 하고 어떤 예들은 그러한 표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ㄱ’이 탈락된 음절이 선행음절과 축약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예들은 그러한 축약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예는 활음이 삽입되고 어떤 예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표기들의 양상에 대한 미시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과정이 현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합형들의 표기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고 미세하게 확보하고 이를 유형화할 것이다. 그 유형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수의적인 표기들에도 주목하면서 이 예들이 전체 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가에 주목할 것이다.²⁾ 이 빈도가 ‘ㄱ’탈락과 관련된 어떤 변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1) ‘ㄱ’과 교체되는 ‘ㅇ’의 음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ㄱ’탈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ㄱ’이 약화된다는 입장에서 ‘ㄱ’이 약화된 이후에 탈락되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 일단 포괄적인 의미로 ‘ㄱ’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15세기 전체의 음운론적인 실

때문이다.³⁾ 이렇게 확보된 자료들에 대하여 ‘ㄱ’탈락과 관련된 음운론적인 쟁점들을 되짚어 나갈 것이다. ‘-거든’, ‘-거늘’이 통합형과 관련된 음운론적인 쟁점은 ‘ㄱ’이 탈락하는 것인가 아니면 약화되는 것인가의 문제와 /-거든, -거늘/과 별도로 /-어든, -어늘/이 존재하는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ㄱ’탈락의 환경을 어떻게 기술하는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2. 기존 논의와 문제 제기

15세기의 ‘ㄱ’탈락 현상은 다양한 측면의 음운론적 설명이 제시되어 왔다. 그 하나는 ‘ㄱ’이 탈락하는 것인가 약화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의는 교체의 결과 나타나는 ‘ㅇ’의 음가에 대한 견해 차이와 관련

상을 밝히는 작업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수의적인 자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구축된 한글 문헌 자료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은 소강춘 교수팀이 개발한 ‘SynKDP (깜짝새)’와 박진호 교수의 ‘UNICONC’이다.

3) 이 논문에서 살펴 본 문헌자료의 목록과 약어는 아래와 같다.

訓民正音 解例本	1446	訓	訓民正音 諺解	1446	훈
釋譜詳節	1447	석상	龍飛御天歌	1447	용
月印千江之曲(上)	1447	월	月印釋譜	1459	월석
楞嚴經諺解	1462	능	法華經諺解	1463	법화
金剛經諺解	1464	금	禪宗永嘉集諺解	1464	영가
阿彌陀經諺解	1464	아	圓覺經諺解	1465	원각
救急方諺解	1466	구방	牧牛子修心訣	1467	목
分類杜工部詩諺解	1481	두초	三綱行實圖-런던대	1481	삼강
南明泉繼頌諺解	1482	남명	金剛經三家解	1482	금삼
觀音經諺解	1485	관음	救急簡易方諺解	1489	구간
六祖法寶壇經諺解	1496	육조	眞言勸供	1496	진공

된 것으로 무음가설(허웅 1965, 정연찬 1987)⁴⁾과 유음가설(이기문 1961)로 대별된다. 둘째는 ‘ㄱ’탈락 현상의 규칙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ㄱ’탈락이나 약화의 환경이 되는 ‘ㄹ’과 하향이중모음 내부의 후행 요소 사이에 자연부류를 찾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전상범 1977, 김정우 1997 등).⁵⁾ 또 다른 문제는 체언과 용언 그리고 선언어말 어미 ‘-리-, -니-’등 규칙에 환경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칙이 통시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어 왔다(이승재 1996, 엄태수 1996, 김정우 1997).⁶⁾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내려진 결론이든 간에 그 반례들을 갖게 되다는 점이다. 유음가설의 근거가 되는 ‘ㄹ\$ㅇ’의 연쇄는 공식적으로 규칙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어간과 어미의 통합형에서조차 쉽게 반례를 찾을 수 있다. ‘미여늘<월석22:63a>’처럼 활음삼입되어 나타나는 표기나 ‘주겨늘<용105>’과 같이 어간의 마지막 음절과 어미의 첫 음절이 음절축약⁷⁾된 표기도 나타난다.⁸⁾ 무음가설의 입장에서 ‘ㄱ’탈락된 이

4) 이극로(1932)는 교체와 관련되지 않는 ‘ㅇ’을 포함한 모든 ‘ㅇ’이 음가를 가진다는 견해를 펴 바 있다. 정연찬(1987)은 후음계열의 ‘ㅇ, ㆁ, ㆏, ㆡ’가 모두 음소에 대당된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에 위배된다는 사실과 ‘ㅇ’은 일반적으로 음절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기능의 단위로 쓰인다는 점 그리고 모음 사이의 ‘ㄹ’은 ‘Vㄹ-V’로도 ‘V-ㄹV’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ㅇ’을 ‘공음소’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ㅇ’의 음가에 대한 연구사는 김정아(1991)를 참조할 수 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사는 김정우(1997)을 참조할 수 있다.

6) 규칙의 소멸과정은 광범위한 환경에서 일어나다가 협소한 환경으로 축소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ㄱ’탈락 현상의 범주 의존성을 설명한 논의로는 엄태수(1996), 김정우(1997)이 있다. 반면 이승재(1996)에서는 구결 자료를 통하여 고려 중기에는 특정 형태의 /y/ (하향이중모음 내부의 후행요소)로 한정되었던 ‘ㄱ’탈락 규칙이 15세기에 이르러 적용의 폭을 넓혀왔다는 상반된 논점을 보이고 있다.

후에 ‘ㄹ’이 연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선어말 어미나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통합된 연쇄에 활음삽입이나 음절축약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ㄱ’탈락의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ㅣ’로 끝나는 입력형은 ‘ㄱ’탈락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ㅣ’로 끝나는 입력형은 ‘ㄱ’탈락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⁹⁾ 그리고 ‘ㄱ’탈락 현상의 소멸 이후에 관련된 범주들의 교체 양상도 여전히 음운론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ㄱ’은 표면에 ‘ㄱ’으로만 나타나고(-거든/거늘, -거나) 어떤 ‘ㄱ’은 여전히 교체를 보이고 있다(-와/과).¹⁰⁾

이러한 상반된 결론들에 대한 올바른 검증은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논의의 결론들은 문헌자료의 표기들 중

- 7)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음절축약’이란 기존의 논의에서 ‘활음화’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활음 y, w는 단모음 i, w와 음운론적으로 [±syllab]자질에서만 차이가 난다. 이것은 활음이 음절구조내부의 위치와 긴밀히 관련된 것이다. 즉 분절음이 음절초에 놓이게 되면 활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음절핵에 놓이면 단모음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활음화 현상의 본질은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음절축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8) 거의 예외없이 ‘ㄱ’탈락의 환경이 되는 선어말어미 ‘-리-’의 경우에도 ‘救護 扈려늘<월석17:21a>’과 같이 축약된 예가 나타나기도 한다.
- 9) ‘디-(落)’와 달리 ‘ㄱ’탈락의 환경이 되는 ‘디-(使落)’ 어간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만일 ‘디-(使落)’ 어간의 ‘ㅣ’가 /iy/라면 ‘치이느니라 LHLHH<능2:5b>使養’나 ‘브리이느 HLHL<능8:117b>使役’에 나타나는 ‘치이-(使養)’나 ‘브리이-(使役)’는 ‘*브리-(R)’나 ‘*치-(R)’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들은 성조면에서도 ‘디-(落)’와 ‘디-(使落)’의 관계와 평행하다.
- 10) 현대국어에서 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와/과’의 경우에는 국어의 일반적인 예들이 보여주는 선택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을/를’의 경우에는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을’을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를’이 선택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동격 조사인 ‘-와/과’의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선택 관계를 가진다.

에서 규칙성을 갖는 것들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상과 관련된 수의적 표기나 특이한 표기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는 당대의 음운론적인 실재를 직접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¹¹⁾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표기에만 주목하여 특수하고 수의적인 현상들을 간과한다면 문헌자료가 갖는 한계를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수의적 표기나 특이한 표기들이 함의하고 있는 어떤 음운론적 실마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표기들에 대한 미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문헌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자료를 발견하고 그 자료가 일정한 유형을 이루고 있다면 거기에는 현상에 관여하는 음운론적 의미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음운론적인 변수를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특정 어미에 한정하고 표기상에 나타나는 특이성이나 수의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 논문 그 대상으로 삼는 특정 어미는 ‘-거든/어든’, ‘-거늘/어늘’이 통합된 자료이다. 물론 ‘ㄱ’탈락 현상은 ‘-거든’이나 ‘-거늘’이라는 두 어미¹²⁾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¹³⁾ 그리고 이 어미의 통합

11) 이기문(1961)에서는 문헌 연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자의 환영’에 대한 우려와 ‘문자표기의 보수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비교 방법이나 내적 재구 및 방언학을 통해 문헌상의 결함을 보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연구상의 제약, 표기의 보수성과 표기 자체가 주는 제약 등이 문헌자료가 갖는 한계의 구체적 예가 될 것이다. 특히 표기의 이면에 가려진 실제 언어 자료가 갖는 음성적 정보를 정확히 얻어내기 어렵다. 또한 특정 자료에 대한 재조사나 확인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12) ‘-거든’과 ‘-거늘’은 관점에 따라서 ‘-거+-든’이나 ‘-거+-늘’로 더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계열관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공식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고영근(1981)의 입장을 따라 하나의 어미나로 취급한다. 이 두 어미 이외의 ‘-거/어’나 ‘-거/어’와 관련되는 다른 어

형이 ‘ㄱ’탈락 현상의 전형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 통합형만을 대상을 삼는 이유는 굴절 환경에서 일어나는 ‘ㄱ’탈락 현상은 15세기 당시에 공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용에서 ‘ㄱ’탈락을 보이는 어미들을 고찰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비교적 확인이 수월한 ‘-거든’과 ‘-거늘’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을 동시에

미들에 대한 고찰은 이 논문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거/어-’를 다루지 않고 ‘-거든, -거늘’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미 ‘-거/어-’는 15세기 당시에 분석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관여한다. 이것은 선어말 어미 ‘-거/어-’에는 통시적인 어떤 변수가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세기 문헌에 두 차례 등장하는 ‘뵈여시늘<용62>’은 ‘거시거늘<석상 11:13b>’과 ‘드외어늘<월석2:50b>’의 ‘-거-’나 ‘-어-’를 음운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15세기 문헌에서 하향이 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통합되는 ‘-거든’이나 ‘-거늘’은 ‘ㄱ’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뵈여시늘’에서 ‘여’로 나타나는 것이 ‘거’에서 ‘ㄱ’이 탈락하고 활용이 삽입되었는가의 여부는 ‘-거늘’이나 ‘-거든’과의 통합형의 일반적인 양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이런 예들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거/어’나 이와 관련된 다른 어미들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수행되는 연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거/어’나 ‘-거/어’에 관련된 다른 어미들의 통합형의 연구 결과가 ‘-거든’이나 ‘-거늘’의 통합형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 대조하는 것도 의미있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3) 15세기 문헌에서 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주만 하더라도 모음이나 ‘ㄱ’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과/와(공동격 조사), -곳/움(강제 첨사), -가/아, -고/오(의문형 어미)’ 등의 교체를 확인할 수 있고, 하향이중모음이나 ‘ㄱ’로 끝나는 용언 뒤에서 ‘-거/어’나 ‘-거/어’ 관련 어미(거늘/어늘, 거나/어나 등), -게/에, -고/의, -고/오, -관디/완디’ 등의 교체가 확인된다. 또한 계사 뒤, 선어말 어미 ‘-니-’와 ‘-리-’ 뒤, 의존명사 ‘디’ 뒤에서도 이러한 교체가 발견된다.

다루어서 생기는 문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거든, -거늘’의 통합형의 표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어간말 자음 ‘ㄹ’의 후행 음절의 음절초로의 이동, 그리고 음절축약과 활음삽입의 구체적 양상이다. 확보된 자료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거든, -거늘’과 ‘-어든, -어늘’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입력형과 도출형의 관계인가? 아니면 탈락이나 약화의 대상이 되는 ‘-거든, -거늘’과 별개로 /-어든, -어늘/이 존재하는가? ‘-거든, -거늘’에서의 ‘ㄱ’은 탈락하는가 아니면 약화되는가?

둘째는, ‘ㄱ’탈락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ㄱ’은 ‘ㄹ’과 하향이중모음 뒤에서만 탈락하는가? ‘ㄱ’탈락의 환경이 되는 ‘ㅣ’에 대하여 /iy/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 논문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은 15세기 국어의 ‘ㄱ’탈락 현상 전체를 살피기 위한 초기 단계의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들이 ‘ㄱ’을 갖는 각각의 대상별로 이루어져 귀납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ㄱ’탈락 현상의 본질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3. ‘-거늘, -거든’ 통합형의 표기

3.1. 선행 어간말 자음 ‘ㄹ’의 표기

‘ㄹ’로 끝나는 어간에 ‘-거늘, -거든’이 통합될 때 ‘ㄹ’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의 예들은 어간말 자음 ‘ㄹ’이 어미의 첫음절의 음절초로 이동하지 않은 것들이다.¹⁴⁾

14) 괄호 속의 숫자는 해당 어간에 ‘-거든, -거늘’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자료

- (1) ㄱ. 갓굴어늘<능2:12b>(2), 걸어든<구간6:5a>蔽(4), 기울어든<영가하: 117a>傾(29), 길어늘<석상24:48a>長(2), 너홀어든<두초11:16a> (1), 놀어늘<월석25:141b>遊(2), 답달어든<구간1:104a> 晷(3), 두위틀어든<구간7:04a>(1), 드물어늘<두초14:30b>稀(1), 머물어늘<월3a>居(2), 멀어든<월석2:12b>遠(4)¹⁵⁾, 모달어늘<월석22:1b>(1), 살어든<월석8:93a>生(8), 슬어늘<능4:126b>消(1), 울어든<석상9: 30a>泣(19), 어덜어늘<월석2:5b>仁(1), 이울어든<월석서:16a>(4), 일어든<월석8:9b>成(19), 줄어늘<월석1:16a>潤(2), 굴어든<월석서:16a>換(2), 놀어든<두초10:22a>散(2), 드라들어늘<삼강烈32> (2), 둘어늘<삼강烈26>甘(1), 술어늘<능5:35b>燒(3),
- ㄴ. 밍굴어늘<남명하49a>作(1), 알어든<능1:61b>知(6), 할어늘<용104> 讒訴(2), 짚어늘<법화4:123b>(2), 썰어늘<월석4:8a>(1), 풀어든<두초25:10a>賣(1)

(1)은 ‘ㄱ’로 끝나는 어간에 ‘-거든, -거늘’이 통합된 예들이다. 표기에 ‘ㄱ’은 필수적으로 탈락할 뿐 ‘*ㄱ거든’이나 ‘*ㄱ거늘’과 같은 표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1ㄱ)에 나타난 어간들은 자동사이고 (1ㄴ)의 어간들은 타동사이다. (1)에 나타난 예들은 모두 이기문(1961, 1969)의 유음가설을 지지하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ㄱ’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행 음절의 첫머리에 어떤 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세기 문헌에는 (1)과 같은 환경에서, 어간의 음절말 ‘ㄱ’이 후행 음절초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예들도 보인다.

- (2) ㄱ. 브러늘<삼강孝3>咬(1), 브러든<구방하67b>(4)

의 빈도이다. 지면 관계상 (1)의 자료에 대해서는 ‘-거늘, -거든’을 구별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각각의 구별이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각기 그 빈도를 나타내었다.

- 15) ‘멀어든<월석2:12b>’은 ‘盲’의 의미에 해당하는 어간의 통합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遠’에 해당하는 어간이다.

- ㄴ. 어러늘<삼강烈2>通情(1)
- ㄷ. 뿌러든<영가하106a>掃(1)

그런데 (2)의 예들은 연철된 표기로만 나타나¹⁶⁾ 가상할 수 있는 통합형인 **몰어든*, **몰어늘*, **얼어늘*, **얼어든*, **뜰어든*, **뜰어늘*은 확인되지 않는다. (2)의 예들은 대립되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2)는 ‘-거든’과 ‘-어든’의 관계에 관여하는 현상이 ‘ㄱ’약화 현상이 아니라 ‘ㄱ’탈락 현상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2)의 예들을 ‘ㅇ’의 유음가설에 대한 반례들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서는 어간과 어미의 통합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굴절의 과정에서 탈락(또는 약화)의 환경이 되는 ‘ㄴ’이 후행 음절의 음절초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후행 음절초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두 번째 가능성은 (1)에 통합된 ‘-거든, -거늘’과 (2)에 나타난 ‘-어든, 어늘’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ㄱ’탈락 현상의 출력형인 ‘-어든, -어늘’과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어든, 어늘’이 다르다는 해석으로 (1)의 예들은 ‘-거든, -거늘’에서 ‘ㄱ’이 탈락한 예들이고 (2)의 예들은 어휘부의 ‘-어든, 어늘’이 선택된 것이라는 해석이다.¹⁸⁾ 이런 입장을 따른다면 (1)의 예들이 연철되지

-
- 16) (2)에 나타난 예들은 (1)에 보인 예들에 비하여 어간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 그러나 괄호안의 빈도가 낮다고 하여 이들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의 예들 중 어간 ‘울-(泣), 기울-(傾), 일-(成)’에 통합된 예들을 제외하고는 문헌상에 나타나는 출현 빈도는 (2)가 보여주는 빈도와 크게 차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 17) 이 해석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1)의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마무리에서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를 제기할 것이다.
- 18) 고영근(1980:65)에서는 어간이 타동사에는 ‘ㄱ’의 교체와 무관한 ‘어’가 선택되고 자동사에는 ‘ㄱ’교체를 갖는 ‘-거/어’가 통합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않은 이유는 유음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2)의 예들이 연철된 이 유도 설명될 수 있다.¹⁹⁾ 아래의 (3)은 두 번째 가능성을 지지해 주는 예들이 될 수 있다.

- (3) ㄱ. 드리든<월석7:70b>聞(3), 드리늘<석상24:47b>擧(1), 무러늘<석상23:22b>問(4), 무러든 <육조上56a-7>問(2)
 cf. 듣거든<월석23:79a>落(5), 듣거늘<월석11:1a>落(2)
 ㄴ. 눌러든<구방하51b>壓(1), 불러늘<법화2:123b>呼(2)
 ㄷ. 듣고<석상11:15b>聞, 묻고<석상6:14b>問, 누르며<금삼3:6a>壓, 브르고<석상13:8b>呼
 ㄹ. 드리<석상6:22b>聞, 무리<석상9:30b>問, 눌러<월석8:66a>壓, 불러<석상6:6b>呼

(3ㄱ)은 ㄷ-불규칙 용언인 ‘듣-(聞), 묻-(問)’의 활용형이고 (3ㄴ)은 ㄹ-불규칙 용언인 ‘누르-(壓), 부르-(呼)’의 활용형이다. 그리고 이 어간들은 모두 타동사이다. 그리고 이들 어간에 자음 어미가 연결되었을 때는 (3ㄷ)과 같이 나타난다. 이 어간이 (3ㄱ, ㄴ)처럼 음절말에 ‘ㄹ’을 갖거나 ‘ㄹ\$ㄹ’연쇄로 나타나는 것은 (3ㄹ)처럼 모음어미가 연결되었을

19) 세 번째 가능성은 (2)의 표기가 비교적 후대의 표기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ㄱ’약화 현상이 탈락현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소리의 변화과정이 공시적 음운현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긴밀히 관련된다. 이러한 표기상의 변화를 ‘ㅇ’의 음가의 소멸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하려면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될 수 있다거나 어휘부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혈어늘’과 같은 예가 후두 유성 마찰음을 가지다가 점차 소멸되어 ‘허러늘’과 같은 표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만이 음운론적인 타당성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음운론적 변화가 직접 이루어지는 대상은 어미 통합형이라는 증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떤 활용형만이 선택적으로 저장되는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이다. 즉, (3ㄱ, ㄴ)의 예들은 ‘-거든’이나 ‘-거늘’과 같은 자음어미로 시작되는 어미가 통합된 것이 아니라 원래 모음어미로 시작하는 ‘-어든’이나 ‘-어늘’이 통합된 것이라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선택 관계에는 자동사나 타동사라는 특성이 어휘부에서부터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동사 어간인 ‘듣-(落)’의 경우에는 (3ㄱ)과 같이 ‘*드러든(落)’이나 ‘*드러늘(落)’과 같은 예는 발견되지 않고 (3ㄱ)의 비고 항목에 보인 것과 같이 ‘-거늘’이나 ‘-거든’과 통합되어 나타난다.²⁰⁾ 또 한 (2)에 보였던 어간들이나 (3)에 보인 어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동사라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4)의 예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4)는 (3)에 보였던 어간인 ‘듣-(聞), 묻-(問), 부르-(呼)’가 ‘-거든, -거늘’과 통합되어 나타난 예들이다.

- (4) ㄱ. 듣거든<월석23:74a>(3)聞, 듣거늘<월석13:50b>聞(1)
 묻거늘<월석25:24a>問(1), 묻거든<능4:104b>問(9)
 ㄴ. 부르거든<법화6:37b>呼(1), 부르거늘<월석10:25a>(1)

(3ㄱ, ㄴ)에서 ‘드러든’이나 ‘무러늘’로 연철되어 나타난 활용형이 같은 문헌인 《월인석보》에서 (4ㄱ)과 같이 ‘듣거든’이나 ‘묻거든’으로 표기되어 있다. (4ㄴ)도 마찬가지다.²¹⁾ (2), (3), (4)의 예들을 통해서 적어

20) ‘묻-(染)’ 어간 역시 ‘묻거든<내훈1:45a>’으로만 나타난다.

21) (3ㄴ)과 (4ㄴ)은 ‘ㄹ’와 ‘ㄹ\$’의 교체를 보이는 어간들이다. ‘ㄹ’와 ‘ㄹ\$’의 교체를 보이는 예들에도 이와 유사한 예들이 발견되는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니르-(爲)’어간의 경우에 ‘禍福을 닐어든 곧 두리 본 ㅼ들 내야 <석상9:36a>’와 같이 ‘닐어든’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큰 법을 니르거든 沙彌 듣더니<월석7:33a>’에서처럼 ‘니르거든’으로 표기된 예들이 공존한다. 반면 동일한 교체를 보이는 ‘빚브르-(飽)’는 ‘빚브르거든 <두초22:51b>(1)’만 나타나고 ‘*빚블어든’이나 ‘*빚브러든’과 같은 예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도 ‘-거든, -거늘’과 통합된 활용형들에는 ‘ㄱ’탈락과 관련되지 않은 어휘부 내의 /-어든/이나 /-어늘/의 상정해야 하는 필연성이 약화된다. 어휘부에 두 가지의 어미가 공존한다는 것은 각각의 어미에 통합되는 어간의 범주 표시가 되어 있어 어미가 어간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어늘, -어든[타동사]↘

-거늘, -거든[자동사]→·타동사

②

-어늘, -어든[타동사]↘

-거늘, -거든[자동사]→·자동사

그런데 (3)과 (4)의 예에서처럼 ①과 ②가 모두 나타난다면 ①과 ②가 변별되어 어휘부에 저장된다는 사실이 의미가 없다. (1)의 예들에서도 (1ㄴ)의 타동사 어간에 통합된 예들이 ‘ㄱ’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어휘부에서부터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별에 의해 어미가 선택된다는 점에 대한 반례들이 된다. 또한 타동사 어간에 ‘ㄱ’탈락과 관련되지 않는 연결 어미 ‘-아/어’가 통합하는 경우에도 연결된 예들이 보인다는 사실도 이를 지지한다(菩提樹를 들어<월석 4:43a>擧, 그 소리 苦空無常無我를 묻어<석상11:15b>問 등).²²⁾

22) ‘듣-(聞), 들-(落), 들-(入)’ 어간에 ‘-거든, -거늘’이 통합된 예들의 빈도를 아래와 같은 표로 제시할 수 있다.

	석상	월	월석	능	법화	선영	원각	구방	아	두조	삼강	금삼	남명	구간	육조	계
聞	듣거든			1	1	1										4
	듣거늘			1												1
	드러늘	1														1
	드러든			1									1		1	2
落	듣거든			3					1	1						5
入	들어든	2		1	1	1		1	10		1	3	1		5	21
	들어늘	2	1	2	2	1					5					13

‘듣-(聞)’ 어간의 통합형은 통합된 어미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을 보이는

특히 아래에 보인 예들은 어휘부에 /-어든, 어늘/이 존재하고 어간의 종류에 따라 선택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5) ㄱ. 부러든<월석8:73a>風(1), 불어든<두초19:29a>風(3)
 부러늘<월석25:53b>奏(1), 불어늘<남명하:27b>奏(1)
 ㄴ. 비러늘<석상23:40b>祈(1), 빌어든<월석20:69b>祈(1), 빌어늘<월
 석20:70b>祈(1)
 비러늘<월석20:70a>借(1), 빌어늘<월석20:72a>借(1), 빌어든<두
 초24:56b>借(1)
 ㄷ. 어우러든<법화6:26b>和(1), 어울어늘<釋詳3:29a>(1), 어울어든
 <法華2:142a>(2)
 ㄹ. 여러늘<월석25:36b>開(2), 여러든<두초21:14a>開(1)
 열어든<월석23:80b>開(4), 열어늘<석상24:6b>(5)
 ㅁ. 허러든<월석15:46b>毀(1), 헐어든<석상23:33b>毀(15), 헐어늘
 <능9:49b>毀(1)

(5)에 보인 ‘불-(風, 奏), 빌-(祈, 借), 열-(開), 어울-(和), 헐-(毀)’ 등의 어간들은 연결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예들을 모두 가진다. 동일한 어간이 보여주는 이런 표기들은 ‘-거든, -거늘’과 ‘-어든, -어늘’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어간 ‘불-(風)’은 자동사이고 ‘불-(奏)’ 타동사로 쓰인다. 그런데 (5ㄱ)에서 보듯이 이들 두 어간의 통합형은 연결된 예와 분절된 예가 함께 나타난다. 이것은 어간의 범주에 따라 다른 어미가 통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하는 것이다. 이들 표기에 통합된 어미를 입력부에 ‘ㄱ’을 가졌던 것과 ‘ㄱ’을 갖지 않았던 것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다.

그렇다면 (2, 3, 4, 5)에서 보이는 연결 표기는 자연스럽게 유음가설의 적극적인 반례가 된다. ‘ㄱ’이 약화되어 후두유성마찰음과 같은 소리가 어미에 남아있다면 이와 같은 표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들이 모두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어간의 통합형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거든, -거늘/과 별도로 존재하는 /-어든, -어늘/을 상정할 수는 없다. 둘째, ‘-거든, -거늘’과 통합된 ‘ㄹ’로 끝나는 어간이 ‘ㄱ’탈락 이후에 ‘ㄱ’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거든, -거늘’의 통합형 중 ‘ㄹ’로 끝나는 어간의 표기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거든, -거늘’의 다른 통합형 표기가 위의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 다른 통합형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야 한다.

3.2. 음절축약과 활음삽입

이 절에서는 ‘ㄱ’탈락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활음삽입이나 음절축약에 대한 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3.1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이들 표기에서도 평행하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거든’이나 ‘-거늘’은 선어말 어미 ‘-리-’나 ‘-니-’ 의존명사 ‘디’에 통합될 때 그리고 계사와 통합할 때 필수적으로 ‘ㄱ’이 탈락한다. 그리고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통합할 때에도 필수적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 ‘리어든’이나 ‘니어든’ 그리고 ‘디어든’ 등의 연쇄는 활음삽입이나 음절축약의 환경을 만든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활음삽입이나 음절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양상은 ‘-거든, -거늘’과 통합하는 선행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선어말 어미나 계사와 통합할 때는 활음삽입이나 음절축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6)은 ‘ㄱ’탈락이 거의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통합형이다.

- (6) ㄱ. 주그리어든<능9:110a>死, 업스리어늘<월석13:32a>無,
 허리어든<법화4:114b>爲(4), 허리어늘<월석8:74b>(15)
 cf. 救護허려늘<월석17:21a>(1)

- ㄴ. 境이니어든<원각하3-2:64a>, 디나니어든<구간1:69b>, 먹느니어

든<구간3:118b>

ㄷ. 滅호디어늘<월석11:62b>(17)

ㄹ. 비치어든<월석8:38b>光, 둘히어든<원각상1-2:57a>二, 거시어늘
<석상6:5b>(11)

ㅁ. 아니어늘<월석서:12a>否(29), 아니어든<원각하3-2:27b>否(11)

(6ㄱ, ㄴ)은 각각 선어말 어미 ‘-니-, -리-’와 통합된 예이고 (6ㄷ)은 의존명사 ‘디’와 통합된 예이다. 그리고 (6ㄹ)은 계사 통합형이다. (6ㅁ)은 어간 ‘아니-(否)’의 통합형인데 모든 예가 ‘아니어늘’이나 ‘아니어든’으로만 나타난다. (6)의 예들은 활음삽입된 ‘*리어든, *리어늘’이나 ‘*니여든, *니여늘’, ‘*디여늘, *디여든’ 등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절과 음절이 축약되어 ‘*려, *더, *녀’로 나타나는 예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선어말 어미 ‘-리-’와 ‘-어든’이 ‘려든’으로 음절축약된 예가 (6ㄱ)의 비교항목처럼 1예가 나타날 뿐이다.

(6)에 대한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표기에 나타난 ‘-어든, -어늘’의 음절초 ‘ㅇ’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6ㄱ)의 비교항목의 예를 제외한 나머지의 예들은 유음가설을 지지하는 것들이 된다. 15세기에는 ‘ㅣ\$어’가 연쇄될 때 음절축약이 일어나거나 활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6)의 예들처럼 ‘ㅣ\$어’연쇄가 유지되고 있다면 ‘-어든’이나 ‘-어늘’의 음절초에 무엇인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해석의 입장이 유음가설이다. 둘째는 ‘ㄱ’탈락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6)의 예들에는 모두 ‘ㄱ’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선어말 어미 ‘-시-’의 통합형은 ‘禮數히시거늘<석상11:13b>, 오시거늘<석상24:7b>’와 같이 표면에 ‘ㄱ’이 나타나는 예들로만 실현된다. ‘ㅣ’를 /iy/와 /i/로 구분하여²³⁾ y뒤에서만 ‘ㄱ’이 탈락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6)에 나타난 예들과 ‘-시-’와 통합된 예의 차이를

23) 이기문(1969)에서는 15세기의 계사가 단순한 /i/가 아니라 /iy/라고 하였고 이승재(1996) 등에서도 이런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6)의 어간 ‘아니-(否)’의 ‘ㅣ’도 /iy/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니-’ 어간은 ‘*아니거늘, *아니거든’과 같은 예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어간들 중 /iy/로 설정하여야 할 ‘ㅣ’가 (6)의 예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중 일부가 (7)의 예들이 된다. 아래의 (7)은 어간말 음절의 ‘ㅣ’와 ‘-거든, -거늘’이 음절축약된 예들을 어간 마지막 음절의 음절초 자음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 (7) ㄱ. 주겨늘<용105>殺(3), 주겨든<석상23:35a>(3), 주겨늘<삼강忠25>(2)
 심겨늘<월석25:129a>使植(1), 즐겨든<석상13:17b>樂(1), 사겨늘
 <법화3:156a>刻(1)
 니겨늘<법화2:248a>習(1)
- ㄴ. 맛더늘<월석4:17a>任(4), 맛더든<석상9:30a>(3), 맛더늘<월석25:61a>(1)
- ㄷ. 브려늘<석상11:23a>捨(3), 브려든<능9:89a>(9), 브려늘<월석25:75b>(1)
 기려든<능8:6a>讚(2), 기려든<원각하3-1:41a>(1)
 두드려든<두초16:60a>鼓(1), 버려든<구간3:24a>開(1),
- ㄹ. 더러여든<두초25:50b>使汚(1), 빌여늘<석상6:35b>借(1), 물여든
 <구방하73b>咬(4)
 들여늘<월65b>使入(2), 들여늘<두초22:1a>(1)
 cf. 드러늘<월석21:198b>(3)
 스여늘<월석22:63a>被包(1), 올여든<월석20:90a>使登(1)
- ㄴ. ㄱㄹ처늘<법화2:31a>敎(2), ㄱㄹ처든<석상19:2a>(3), ㄱㄹ처늘<삼강烈24>(1), 그쳐늘<월석25:81a>止(1)
- ㄷ. 터든<석상19:31a>打(2), 터늘<삼강孝10>(5), 내터늘<석상24:2b>(1), 베터늘<월석4:66b>(1), 브터늘<두초8:17b>使着(1), 드리터든<월석1:29a>(1), 업더리터든<삼강忠20>(1), 티와터든<구간2:17b>(1)
- ㄸ. 구퍼든<석상24:32b>屈(1)
- ㅇ. 버혀든<월석1:43a>斬(1)

이 어간들은 모두 음절축약된 예로만 보일 뿐, *주기어든, *심기어든, *즐기어든'이나 *주기어늘, *심기어늘, *즐기어늘' 등과 같은 활용형은 보이지 않는다. (7)의 예들은 앞 절에서 제기되었던 /-거든, -거늘/과 다른 /-어든, -어늘/이 어휘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이들 어미가 어휘부에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고 모든 /-거든, -거늘/이 동일한 입력부를 갖는다는 입장에서 (7)의 예들을 해석해 보기로 하자. 이 입장에서는 'ㄱ'이 탈락한 음절초에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ㅣ'와 '-어든, -어늘' 사이에서의 이러한 축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ㄱ'이 탈락한 음절초에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3.1에서 보았던 'ㄷ'의 연결 표기례들이 유음가설의 반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과 평행하다. 또한 (6)의 비교항목에 나타난 '救護하려늘<월석17:21a>'과 같은 예가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ㄱ' 탈락을 전제하는 입장에서는 (6)과 평행한 해석을 위하여 (7)에 나타나는 어간들의 마지막 음절의 'ㅣ'도 /iy/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결론부터 먼저 제시한다면 (6)이나 (7)에 나타난 모음 'ㅣ'는 /iy/로 설정할 수 없다. 기존논의에서 기저에 /iy/와 같은 추상적 기저형을 감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표기상 동일한 'ㅣ' 중 어떤 것은 'ㄱ'탈락의 환경이 되고 어떤 것은 'ㄱ'탈락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²⁴⁾

24) 이기문(1969:143-144)에서는 '디-(使落)'의 'ㅣ'는 /iy/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디-'어간의 '-거든, -거늘'의 통합형은 모두 '디-(落)' 어간의 활용형이므로 이 어간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펼 수 없다. 그런데 표기상 '디-'로 나타나는 것을 /iy/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이와 동일한 관계를 갖는 '치-(養)'과 '브리-(使)'의 사동접미형은 *'브리-(R)'나 *'치-(R)'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치이느니라 LHLHH<능2:5b>使養'나

또 하향이중모음이 필수적으로 ‘ㄱ’탈락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ㄱ’탈락을 야기하는 ‘ㅣ’를 하향이중모음과 동일한 기저로 설정함으로써 평행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7)의 예들의 경우에 기저에 /iy/를 갖는다는 주장은 ‘ㄱ’탈락을 야기하는 ‘ㅣ’모음을 갖는 어간과 그렇지 않은 어간들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하향이중모음과의 평행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 /iy/는 이중모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어미와 축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15세기 국어의 하향이중모음은 모음 어미와 만났을 때 활음삽입이 일어날 뿐이다. (7)에 나타난 예와 같은 음절축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y’탈락 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15세기 국어에서 이 규칙은 /iy/뒤에서만 일어나는 인위적인 규칙이 된다. 무엇보다, /iy/와 같은 연쇄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7)에 나타난 예들은 추상적 기저인 /iy/의 설정에 대한 반례들이 된다.

추상적 기저인 /iy/를 설정하지 않고 (7)의 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ㄷ’의 연철문제에서 점검되었던 것처럼 입력부에서부터 /-어늘/, /-어든/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도 3.1에서 ‘ㄷ’의 연철과 관련해 다루었던 것과 평행한 문제가 제기된다. (7)의 예에 나타나는 어간들 중에 ‘-거든’이나 ‘-거늘’과 통합된 예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8) ㄱ. 주기거늘<월석22:26b>殺(1), 주기거든<삼강烈13>(1)

즐기거든<능6:13b>樂(19), 즐기거늘<용106>(1)

심기거늘<삼강孝10>使植(1)

ㄴ. 기리거늘<영가하:116b>讚(1)

ㄷ. 티거든<석상13:22a>(4), 티거늘<월석20:49a>打(11), 티거늘<두초

‘브리이느 HLHL<능8:117b>使役’와 같이 ‘치이-(使養)’나 ‘브리이-(使役)’로 나타난다. 이들은 성조면에서도 ‘디-(落)’와 ‘디-(使落)’의 관계와 평행하다.

23:26b>(3)

(8)의 예는 (7)에서 음절축약만을 보였던 ‘주기-(殺), 즐기-(落), 심기-(使植), 기리-(讞), 티-(打)’ 어간에 ‘-거든, -거늘’이 통합된 예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입력부에서부터 /-어늘/, /-어든/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는 사실과 이들 어간의 마지막 모음 ‘ㅣ’를 /iy/로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입력부가 /-어늘/, /-어든/이었다면 (8)에 예들에 나타나는 ‘ㄱ’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기저가 /iy/라면 (7)에서는 ‘ㄱ’탈락이 일어나고 (8)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7)과 (8)의 예들은 ‘ㅣ’로 끝나는 모음 뒤에서 ‘-거든, -거늘’은 ‘ㄱ’이 탈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8)과 같은 예들이 문헌상의 특이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다. 특정 문헌의 편찬자의 특성이 통합형의 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8)에 나타나는 통합형의 문헌별 빈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통합형이 문헌의 출판 연도와 상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주기-(殺)’의 활용형이다.

[표 1]

		석상	용	월석	능	법화	영가	원각	내훈	두초	삼강	구간	육조	계
殺	주거늘		1		1						1			3
	주거든	2	1											3
	주거늘								1		1			3
	주기거늘			1										3
	주기거든										1			3

[표 1]이 주는 정보는 (7)과 같이 음절축약을 보이는 예들이 초기 문헌과 후기 문헌에서 모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거든, -거늘’이 표기에 나타나는 시기와 음절축약 표기 사이에 ‘ㄱ’이 약화되어

탈락하는 과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대의 설명도 가능하다. 즉, 축약표기가 더 이전 표기이고 다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거든, -거늘’이 반영된 표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월인석보》에서 이미 ‘주기거늘’과 같은 표기가 나타난다. 이것은 다른 어간의 표기에서도 평행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1]이 제시하는 또다른 정보는 《삼강행실도-런던 대학본》에 음절 축약형과 ‘-거든’ 통합형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이들 통합형이 갖는 수의성이 동일한 문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늘, -어든’이 입력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례가 된다. 또한 ‘ㄱ’탈락 이후 그 빈자리에 어떤 소리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어간의 통합형과 [표1]이 보이는 정보들을 비교함으로써 더욱 두드러진다.

[표 2]

		석상	용	월석	능	법화	영가	원각	내훈	두초	삼강	구간	육조	계
樂	즐거든			1										1
	즐기거늘		1											1
	즐기거든				18			1						1

[표 2]의 자료는 주로 [표 1]에서 음절축약형만 나타났던 《용비어천가》에 ‘-거늘’이 통합하고 ‘ㄱ’탈락되지 않는 통합형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⁵⁾ ‘타-(打)’와 관련된 아래의 표는 ‘-거든, 거늘’ 통합

25) ‘즐기거든’이 《능엄경 언해》에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음운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문헌별로 특정 어휘가 더 많이 선택되는 경향 때문에 ‘즐기-’라는 어간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문헌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능엄경 언해》가 음절유지나 음절축약에 대해 표기상의 선호성을 보이는 문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세기 문헌에서 음절축약 현상을 특별히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는 문헌은 《분류두공부시언해》이다. 이 문헌은 다른 문헌에 비하여 음절축약의 반영률이 높다.

형과 관련된 사실을 다층적으로 보여준다.

[표3]

		석상	용	월석	능	법화	영가	원각	내훈	두초	삼강	구간	육조	계
打	터든	1		1										2
	터늘										5			2
	티거든	1		1		1						1		2
	티거늘			3						2	8			2
	티거놀								1	1			1	2

《석보상절》이라는 동일한 문헌에 음절축약형과 ‘ㄱ’유지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입력부에서 /-어든, -어늘/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시킨다.²⁶⁾ 어휘부에 이들 어미를 선택하는 것은 동사의 어휘적 특성일텐데 공식적으로 통합되는 관계에서 동일어간에 대한 선택이 /-거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월인석보》나 《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예들도 이러한 사실을 지지한다.²⁷⁾ 위의 표에서는 탈락형이나 비탈락형이 초기 문헌에 집중되었다든지 또는 후기 문헌에 집중되었다든지 하는 경향성도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2005)를 참조할 수 있다.

26) ‘터든’은 19권의 자료이고 ‘티거든’은 13권의 자료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두 권의 편찬자가 다르다면 각각의 개인적 차이가 표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라 할지라도 이 두 통합형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27) (8)의 어간들 중에서 제시되지 않는 나머지 어간들의 활용형의 문헌별 빈도는 아래와 같다.

		월석	능	영가	원각	삼강	계
讚	기려든		1		1		2
	기리거늘			1			1
使植	심겨늘	1					1
	심기거늘					1	1

보여주지 않는다. 이것은 (7)의 예들과 (8)의 예들 사이에 어떤 시간성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든’이나 ‘-거늘’의 통합형과 관련하여 입력부에서부터 /-어늘/, /-어든/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들 어간의 마지막 모음 ‘ㅣ’는 /iy/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가 존재한다. 아래의 (9)는 동일한 어간이 ‘ㄱ’탈락 이후의 연쇄와 음절축약을 모두 보이는 예들이다.

- (9) ㄱ. ㄹ리어늘ㅅ<금삼4:19a>蔽(1), ㄹ리어늘<남명상:54b>蔽(1)
 ㅅ리어늘<월69b>散(2)
 ㄴ. ㄹ려늘<월석25:90b>蔽(1)
 ㅅ려늘<월석25:107a>散(2)

(9)는 ‘ㄹ리-(蔽), ㅅ리-(散)’ 어간의 활용형인데 (9ㄱ)처럼 ‘ㄱ’이 탈락되어 음절이 축약되지 않은 예와 (9ㄴ)처럼 음절축약된 예가 모두 나타난다. (9ㄱ)은 이들이 ‘ㄱ’탈락 현상의 적용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들이고 (9ㄴ)은 ‘ㄱ’이 탈락된 음절초에 어떤 음가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어간은 동일한 어간이기 때문에 입력부에서 /-어든/이나 /-어늘/을 설정할 수 없다. 기존논의의 설명대로라면 /-어든/이나 /-어늘/이 선택되었다면 (9ㄱ)과 같은 예들이 공식적으로 생산적인 규칙인 음절축약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ㄱ’이 탈락한 이후에 어떤 음가가 남아 있다면 (9ㄴ)과 같은 음절축약이 일어날 수 없다. 어간말의 ‘ㅣ’가 /iy/라는 추상적인 음소라면 (9ㄴ)과 같은 음절축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는 /iy/라는 추상적인 음소를 설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15세기 문헌에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중 ‘ㄱ’이 탈락되지 않고 남아 있는 통합형들은 발견되지 않는다.²⁸⁾ 하

28) 삼중모음 ‘ㄷ, ㅌ’ 등의 중모음 내부 마지막 두 분절음의 연쇄는 하향이중

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통합형은 일반적으로 (10)과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 (10) ㄱ. 게어든<월석7:31b>過(2), 되어늘<석상6:35b>尺(1), 되어든<구간7:39b>強(1), 되어늘<삼강孝30>(1), 뒤퍼든<월석8:65b>動(2), 뒤퍼어든<구간1:108b>被視(1), 뒤퍼어늘<능3:65a>(2), 뒤퍼어늘<월석7:54-1a>空(5), 뒤퍼어늘 <두초20:9a>(1), 새어든<석상6:19a>曙(1), 업테어늘<삼강孝20>伏(2), 여위어든<구간2:84b>, 외어든<두초3:70b>非(2), 골외어늘<용4>侵(3), 찌어늘<삼강忠6>覺(1), ㄷ외어늘<월37a>爲(23), ㄷ외어든<법화1:189a>(96), ㄷ외어늘<월석10:31a>(3)
- ㄴ. 내어늘<능3:89a>生(3), 내어든<월석25:44a>(5), 데어든<구방하14b>火(1), 쉬어든<구간1:61b>息(3), 어긋어든<영가상:68a>違(3)

모두 활음삽입을 보이지 않고 나타난 예들이다. (10ㄱ)은 자동사로 쓰이는 것들이고 (10ㄴ)은 목적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이다. 그렇다면 (10ㄴ)의 예들은 기저에 존재하는 /-어든, -어늘/을 부정한다. 이 예들은 자동사나 타동사에 통합되는 /-거든, -거늘/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여기서 ‘-거든, -거늘’은 앞에서 다루었던 ‘ㄱ’로 끝나는 어간이나 ‘ㅣ’로 끝나는 어간 그리고 (10)의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동일한 모양의 입력부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에서 하향이중모음과 ‘어’의 연쇄는 필수적으로 활음삽입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10)의 예들은 ‘ㄱ’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어 왔다. 여기서 ‘ㄱ’의 연철과 ‘ㅣ’를 갖는 음절의 축약에서 보았던 것과 평행한 해석이 제기된다. 즉, 약화된 자음의 흔적이 활음삽입 현상의 적용을 저지한다는

모음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편의상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였다. 하향이중모음의 내부 구조에 대한 논의는 박창원(1988), 김종규(1989), 졸고(2005)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설명이다. 그런데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예들도 활음삽입만을 보이는 (11)과 같은 표기가 발견된다.

(11) 띄여늘<월석22:63a>(1)

보내여든<월석7:15b>送(1), 보내여늘<삼강忠30>(1)²⁹⁾

드되여든<월석20:66b>踏(2), 드되여늘<능7:62a>(1)

(11)의 예들은 ‘ㄹ’이 연철되어 나타나는 예들이나 ‘ㅣ’로 끝나는 어간이 음절축약을 보였던 예들과 마찬가지로 유음가설의 반례들이 된다. 타동사라는 것을 주목할 때 역시 /-어든, -어늘/이 입력부에서부터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2)와 같이 활음삽입 현상이 일어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들이 공존하는 예들을 볼 때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약화된다.

(12) ㄱ. 뷔어늘<월석22:44a>斬(3), 뷔여든<월석1:45a>斬(2)

ㄴ. 비취어늘<월29a>(3), 비취어든<월석2:59b>(2), 비취여늘<용42>輝(1)

ㄷ. 열의어든<구방하54a>(8), 열의여든<구방하29b>凝

ㄹ. 여희어늘<능7:70a>(3), 여희어든<원각하3-1:120b>(1)

여희여늘<월석23:90b>(2), 여희여든<능2:24b>(2), 여희여늘<월석23:91b>(1)

ㄹ. 빼어늘<육조下82b-3>貫(1), 빼여늘<월15b>(1)

(12ㄱ, ㄷ, ㄹ)의 타동사이지만 (12ㄴ)이나 (12ㄷ)은 타동사가 아니

29) ‘보내어시늘<용25>送(2)’과 같은 예들의 경우에는 활음삽입 되지 않는 예로 나타난다. ‘보내여늘’과 이 예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의 차이가 통시적 변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의 문제는 ‘-거/어-’나 이에 관련된 다른 어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다.³⁰⁾ 이런 예들은 적어도 (10, 11, 12)에 통합된 어미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활음삽입을 보이지 않는 (10)의 예들 중에도 다수의 타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4.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의 ‘-거든, -거늘’은 특정 환경에서 ‘ㄱ’이 탈락한다. ‘-거늘, -거든’의 입력형은 /-거늘, -거든/이며 별도의 /-어늘, -어든/과 같은 입력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ㄱ’은 탈락되는 것이며 ‘ㄱ’이 탈락하는 위치에는 어떤 특정의 소리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ㄱ’ 탈락의 환경이 되는 ‘ㅣ’에 대한 입력형을 /iy/와 같은 추상적 연쇄로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논의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남기고 있다.

첫째, ‘ㄱ’로 끝나는 어간의 통합형에서 음절말의 ‘ㄱ’의 대다수가 연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선어말 어미 ‘-리-’, ‘-니-’와 의존명사 ‘디’의 경우에 음절축약이나 활음삽입된 예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어떤 ‘ㅣ’는 ‘ㄱ’탈락의 환경이 되고 어떤 ‘ㅣ’는 ‘ㄱ’탈락의 환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어떤 ‘ㅣ’로 끝나는 어간은 활음삽입이나 음절축약을 보이는 데 그렇지 않은 예가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어떤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활음삽입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30) (12ㄴ)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구루미 비취여늘 日官을 從히시니<용43>

米粉을 녀허 저서 열의어든 蜜을 녀허 달효디<구방하53b>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수의적 표기나 특수 표기들이 보이는 예들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맺으려 한다. 어떤 특정의 현상은 공시적으로 필수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규칙들 중 하나는 활음삽입 현상이나 음절축약이다. 이들 규칙은 범주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무리하게 규칙화하는 것보다, 그 경향성을 포착하는 것이 오히려 현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올바른 방법일 수 있다. ‘ㄱ’탈락 현상과 관련하여서도 필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엄밀하게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 결론은 ‘ㄱ’탈락의 환경을 보이는 범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일반화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³¹⁾

주제어 : ‘-거든, -거늘’ 표기(written document of ‘-kətin, -kənil’),
ㄱ탈락(‘k-deletion’), 입력형(input), 음절 축약(syllable
contraction)

31)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중의 하나는 의미의 변별을 위하여 음절을 유지하려는 제약과 발화상의 편이를 위하여 음절을 변형시키려는 일련의 제약(onset제약 등)이 상호관계가 표기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졸고(2005)에서는 활음삽입과 음절축약의 현상을 음절유지의 경향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거든, -거늘’의 경우에도 음절을 유지하려는 제약과 발음의 편이성과 관련된 유표성 제약의 상호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은 ‘ㄱ’탈락과 관련된 다른 현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に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國語學》9, 國語學會.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김경아(1991), 中世國語 喉音에 대한 一考察,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민음사.
- 김남미(2005), 15세기 국어의 중모음 연구, 서강대 박사 논문.
- 김정우(1997), 中世國語 ‘ㄱ’탈락 현상 再論, 《가라문화》14, 경남대.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0.
- 박창원(1988),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震檀學報》 64, 震檀學會.
- 박창원(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 엄태수(1996), 15세기 국어의 ‘ㄱ’탈락과 ‘ㄷ’탈락 현상에 대하여, 《언어연구》14, 경희대.
- 이극로(1932), 훈민정음의 독특한 성음 관찰, 《한글》1-5, 한글학회.
- 이기문(1961/1972), 《國語史概說》, 민중서관:1972, 탑출판사.
- 이기문(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69, 震檀學會.
- 이승재(1996), ‘ㄱ’弱화·脫落의 通時的 高찰, 《國語學》28, 國語學會.
- 정연찬(1987), ‘欲字初發聲’을 다시 생각해 본다, 《國語學》16, 國語學會.
- 허웅(1965), 《국어 음운학》, 정음사.

<Abstract>

Phon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conjugational forms combined with ‘-kətin, -kənil’ in Korean of the 15th century

Kim, Nam-Mi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ritten forms of the conjugational forms combined with ‘-kətin, -kənil’ of the written documents in the 15th century.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k’s of ‘-kətin, -kənil’ in the 15th century are not reduced but deleted completely in the context.

Second, the input forms of ‘-kətin, -kənil’ are /-kətin, -kənil/. There are no input forms such as /-ətin, -ənil/.

Third, the condition of ‘k’-deletion is not /iy/ but /i/ which is spelled as ‘ㅣ’.

김남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0-33 동현타운 201호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전화: 직장 (02)705-7871 자택 (02)516-2999

e-mail: leedaul@yahoo.co.kr

이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12월	30일	간행함